

#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3, 사무엘 하 13-15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3회기 사무엘하 13-15장 12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13. 탕자는 몸으로는 집에 돌아오지만 영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4.1-15 12.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그리고 종종 삶과 인간의 경험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는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훔친 부자에게 양 네 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부자입니다. 그는 이미 4배의 지불금 중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했습니다. 다윗과 밋세바의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치시매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름다운 젊은 여자이고 암논은 그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여기서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육체적인 용어로 정욕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생각하시나요? 이 분이 암논의 누이인가요? 음, 그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들은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압살롬은 남매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같고 어머니도 같지만 암논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의 이복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은 암논의 사랑의 근친상간적 성격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라는 언어가 전체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앞에 제시하려는 것은 화자입니다.

암논은 누이 다말에게 너무 집착하여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너무 사랑에 빠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녀는 처녀였고 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성격, 그녀의 처녀로서의 지위로 인해 그녀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 암논에게는 다윗의 형 스미야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논에게 “왕의 아들인 당신은 왜 아침마다 그렇게 초췌해 보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않을래? 무슨 일이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여기 요나답은 암논에게 그의 평생의 사랑인 다말과 어떻게 사귄 수 있는지에 관해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의 궁정에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나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의 요소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기초를 둔 진정한 지혜는 다윗의 왕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 진정한 지혜는 여기서 다소 반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주변의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답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픈 척 하라고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라. 그로 내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내가 그를 지켜본 후에 그 손에서 먹게 하라.

즉, 네, 저는 아버지가 아프지만 간호사가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마르는 아래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려와서 내 간호사가 되어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은 누워서 아픈 척 했습니다. 그는 그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왕이 그를 만나러 오매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내 눈앞에서 별난 떡을 만들어 그 손에서 먹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다윗은 왕궁에 있는 다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send라는 단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다윗의 권위를 상기시켜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가 말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그는 이리저리 보내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멸망시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권 남용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글썄요, 그는 여전히 이 이야기에서 보내고 보내는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루프 밖에 있습니다.

그는 요나답처럼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그곳으로 보내 그녀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 장의 뒷부분에서 그는 압살롬이 맡고 있는 양털 깎는 곳으로 암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암논을 그의 죽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권위 행사가 어떻게 역효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전갈을 보내어 네 형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말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누워 있는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반죽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분의 눈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누워서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빵을 주지만 그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분명히 주변에는 다른 사람, 하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모든 사람을 여기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는 다말과 단둘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Tamar에게 음식을 여기 내 침실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침실로 돌아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바깥쪽 방도 있고 그는 정말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이 준비한 빵을 가져갑니다. 그녀는 그것을 암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그에게 먹으라고 가져갔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내 여동생, 나와 함께 자자"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랑 같이 자자, 내 여동생. 그것은 다윗의 죄의 메아리입니다.

누워서 잠을 잔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때때로 성적 접촉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밋세바와 대화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여동생, 나랑 같이 자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복 여동생과 관계를 갖고 싶어합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왜곡된 관점에서 보면 그는 여기서 이 단어를 단순한 관계적 의미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 시에서는 누이를 청년의 신부에 대한 은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낭만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4장과 5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여기서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이런 종류의 요청에서 관계를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낭만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죄가 무엇인지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안돼, 내 동생,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나는 어때? 나의 치욕을 어디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악하고 어리석은 자 중 하나와 같을 것입니다. 왕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말의 강간에 대한 이 기사와 이스라엘 내전을 촉발한 레위인의 첩의 강간에 대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기사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첩과 함께 여행하던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밤이 채 되기 전에 그곳의 남자들은 그 레위인과 관계를 맺고자 했으나 대신 그의 첩을 내보냈고 그 레위인은 잔혹하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축적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선 레위인을 강간할 생각을 한 것과 그의 누이를 강간할 것을 생각한 암논의 말은 둘 다 부끄러운 일, 혹은 악한 일이라고 불립니다. 니발라(Nivalah)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첩 살해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반응. 레위인들이 신체 부위를 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에 응답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말이 암논에게 호소한 것과 아주 흡사하게 들립니다. 암논은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악함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범죄를 묘사하는 것은 학대하거나 굴욕을 주다라는 뜻의 인아(inah)이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며, 기브아 사람들이 첩에게 행한 일도 그러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을 알고 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말이 암논에게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 형제를 알고 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를 아십시오'라는 표현과 금지 문구는 이 두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아마도 두 본문과 상호텍스트적 연결이 있음을 시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과 암논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후 아직 이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었지만 그녀가 보답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와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사랑의 파트너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이제 그녀가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단지 그녀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말인 일어나 가라는 레위 사람이 끔찍한 경험을 한 다음날 아침에 그의 첩에게 한 말을 반영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다시 집으로 기어갔고 그는 무뚝뚝하게 그녀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손상된 물건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의 서술자가 Gibeah Revisited로 암논의 다말 강간이라는 자막을 붙이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 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곳 왕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재판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기록과 소돔 사이에 온갖 종류의 문학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방문객들인 메신저들을 강간하려고 했던 소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이야기는 소돔의 재방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Gibeah Revisited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왕궁에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때때로 그녀가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을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여기에서 너무 좌절했고 법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여기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글썄, 그녀는 이 시점에서 절망적인 여자다. 내 생각엔 그녀가 그냥 멈추려고 하는 것 같아. 그녀는 그의 편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다 괜찮을거야. 그는 아마도 '아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녀는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논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법이 이것을 금지하지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를 붙잡아 도망가게 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왕께 물어보세요.

그는 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듣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암논은 그를 심히 미워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그녀를 더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졌던 모든 사랑이 엄밀히 말하면 피상적인 육체적 정욕의 다양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 보답하지 않자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그리고 16절에 "아니요, 나를 보내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내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강간 규칙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당신이 나를 범했으므로 나는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파손됐어요. 내 삶은 끝났어.

이 시점에서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을 불러 17절에서 이르되, 이 여자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뒤를 이어 문빗장을 치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말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동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이고 정말로 정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암논이 행한 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인은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녀를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왕의 처녀 딸들이 입던 옷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내가 왕의 처녀 딸임을 알리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화려한 로브를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라고 말하는 듯 찢는다.

그녀는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는 애도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큰 소리로 울며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이복형에게 폭력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런 문화 속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손상된 물건이에요. 그가 집에 돌아가자 그의 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동생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지금은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는 매우 냉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은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사는 외로운 여인이었더라. 그녀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 왕은 이 모든 말을 듣고 노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분노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일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암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말의 대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좋은 나쁜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부끄러움 요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 누이의 명예는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3절에서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털깎이가 있을 예정이에요.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이르되 당신도 나와 함께 하겠나이까 아버지, 내려오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안돼, 내 아들이야, 우리 모두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온 가족이 양털 깎는 현장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그를 재촉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을 거라면 어찌하여 내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내려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데이비드의 일부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그는 왜 너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를 재촉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암논과 왕의 나머지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말을 그녀의 죽음으로 보냈던 것처럼, 그는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압살롬이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들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암논을 쳐서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강하고 용감하십시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당신은 단지 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해.

그래서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이 모두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다른 아들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모든 아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면 도망칩니다.

음, 여기에 사용된 언어 중 일부가 흥미롭습니다.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암논을 쳐죽이라고 하면, 그를 죽여라. 그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동사 세트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압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쳐서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의 죽음을 명령하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들이 물러가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맙소사, 압살롬이 모든 사람을 멸절시켰습니다. 아니, 왕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곁에 섰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다윗의 조카 중 하나이며 다윗의 형제 스미야의 아들인 그의 누이와 화합할

방법을 조언했던 사람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들이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날부터 압살롬의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담즙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표적에 대해 알아요. 그는 이야기에서 David의 호일입니다.

데이비드가 이 일에 대해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암논에게 자신이 다말에게 한 일을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압살롬이 일은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있다. 데이빗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낸 왕은 자기 궁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2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일부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정의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찢고 옷을 찢으며 크게 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암논에게 화를 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침내 이 문제를 강요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논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모두가 찢어진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데이빗도 타마르가 느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4절에 따르면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음 전령들이 와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모두가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36절에 따르면 왕과 그의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도망하여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있는 게술 왕 암미훗의 아들 탈마이에게로 갑니다. 어머니 쪽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압살롬은 그곳 그술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기를 갈망했다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압살롬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암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쳤고, 암논은 죽었고, 다윗은 네 배의 배상금 중 두 번째 할부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4장으로 이어집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2절까지(우리가 좀 더 빨리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탕자가 몸으로는 집에 돌아오지만 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절, 12절을 보면 탕자가 육신으로는 집에 오지만 영으로는 집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사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역이 말하는 방식에 따르면 다윗은 단지 압살롬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을 뿐이므로 번역과 관련하여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감정적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는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적어도 압살롬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요압은 압살롬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의 동기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David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David의 후계자를 위한 다른 옵션에 대해 많은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압살롬을 선한 왕이 될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압살롬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니 거기 지혜로운 여인이 있느니라.

그리고 저는 그녀가 단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는 속임수입니다.

암논에게 한 요나답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다윗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기롭다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지혜가 도리어 돌아섰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기만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데 동의하는 상황으로 다윗을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을 입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도하는 척하세요. 애도복을 입으세요.

화장품 로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하며 여러 날을 보낸 여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니 애도하는 척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현명한 여자는 좋은 배우와 동일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압은 그 말을 입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명한 여성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윗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David는 그녀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중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온 부족이 당신의 종을 대항하여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죄로 처형할 수 있도록 내 아들, 곧 살아 있는 아들을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살아 있는 아들이 형을 죽였더라도 살려 두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긴 유일한 불타는 석탄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도 후손도 지구상에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바탕으로 그에게 호소합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정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이빗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재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살롬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가족을 용서하시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David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에서 누구든지 네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당신을 위해 통치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그러면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가 멸망을 더하지 못하게 하여 내 아들이 멸망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을 뒤집는 공식적인 칙령을 여기서 확실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David에게 자신의 편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종으로 내 주 왕께 말씀드리게 하십시오. 말해봐, 그는 대답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이런 일을 꾀하였느냐? 그녀는 이것을 David에게 반대합니다. 왕이 이 말을 하면 스스로 책망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께서 쫓겨난 자기 아들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나와 내 아들을 대신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큰 동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추방된 당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물을 쏟은 것처럼. 이제 요압이 그에게 이 모든 말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녀의 주장은 당신이 개입하여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추방된 당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요압이 그녀의 입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의사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압의 철학이 여기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추방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는 추방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압의 철학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아브넬을 죽인 후 다윗이 그에게 몇 차례 저주를 내린 것 외에는 정의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방법으로도 정의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철학이다.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이 추방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압살롬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과 압살롬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요압은 과거에 다윗이 요압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이 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드리러 왔나이다. 당신의 종은 내가 왕에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의 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으로 내 주 왕에게서 나의 기업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첨합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는 다윗이 이 이야기에서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글썬요, 데이빗은 바보가 아닙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내게 대답 하지 말라

데이빗은 여기서 뭔가를 의심합니다.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여인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한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말해보세요.

요압이 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David를 좀 더 아첨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주의 종의 입에 넣어 준 사람은 주의 종 요압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단지 그가 나에게 말하라고 요청한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종 요압이 이런 일을 한 것은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였음이니이다

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내 주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지혜를 가지셨나이다. 그분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David에게 조금 더 아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맥락에서 그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렸지만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 좋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요압은 엎드려 다윗에게 경의를 표하고 왕을 축복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니 왕께서 종의 구함을 허락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술로 갑니다. 그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현 시점에서 압살롬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는 여기로 돌아올 수 있지만 나는 그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잠시 거기에서 멈췄다가, 해설자는 압살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멈춥니다.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용모가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매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체적 매력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를 왕의 유력한 후보로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예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할 일이 많습니다.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고 겉모습만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좋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할 것이며,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의 시도에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고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1년에 한 번씩 자르곤 했다. 그가 그 무게를 달아 보니 왕의 단위로 200세겔이었습니다. 3파운드쯤 됩니다.

털이 많아서 잘생긴 사람이에요.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는데,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럽혀진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까지 실제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말 사건은 여전히 여기 배경에 있습니다.

28절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온전한 복귀를 원합니다. 그는 이 배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다윗의 품에 안기지 못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요압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압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압을 왕께로 데려가서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그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왕 후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본 요압은 분명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점에서 전혀 압살롬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꽤 급진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것의 대부분은 특성화입니다.

압살롬은 왕처럼 보입니다. 그는 더럽혀진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말 사건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거나 적어도 많이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요압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글썄요, 우리는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글썄, 어쩌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대면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냥 그 사람 발을 불태워 버리는 게 어때요? 그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의 발을 불태워버리세요. 그래서 그는 요압의 발이 내 발 옆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의 거기에 없습니다.

가서 불을 지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집으로 갔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나이까?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되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보라 내가 당신에게 전갈을 보냈으나 당신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왜 게슈르에서 돌아왔는가? 내가 계속 거기 있었다면 나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왕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나를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마치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나는 단지 암논이 그에게 왔던 대로 그에게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나를 처형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히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점에서 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들어와 절하자 왕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완전히 복귀했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15장이 시작되고 처음 12절을 빠르게 살펴보면 압살롬이 마음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왕좌에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왕이 해야 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약한 왕으로 본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은 병거와 말,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달릴 군사 50명을 준비합니다.

문화의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일종의 왕실 근위병, 왕실 아우라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 같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서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도시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다윗에게 올 것입니다. 압살롬이 앞장에서 활동했던 것은 드고아 여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문제를 안고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압살롬이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장은 타당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왕의 대리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는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 삼으면 누구든지 송사할 일이나 송사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글썄, 이런 일에는 항상 경쟁 당사자가 있지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치 '왕은 정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실제로 계속 통치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의의 옹호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정의의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곤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기에게 키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정의를 구하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흠쳤습니다.

그는 교활한 정치인으로 그들의 마음을 흠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가 왕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년이 지나 압살롬은 왕에게 이제 이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로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종이 그술과 아람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서원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면 나는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나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곳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이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가매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것을 기억하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왕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은밀한 사자를 보내어, 헤브론으로 오라. 압살롬이 그곳에서 왕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남자가 압살롬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순진하게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아히도벨을 불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라고 발음하지만 아히도벨은 히브리어로 발음합니다. 다윗의 조언자인 겔론 사람.

그래서 그는 그를 오라고 초대했고, 분명히 아히도벨은 그의 지지를 압살롬에게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모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그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탕자 압살롬이 육신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데이비드가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가 압살롬을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의 챔피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왕이 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제대로 된 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옳다고, 주님께서 이것을 전혀 지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패는 계속되는 죄의 축매제였습니다. 요압이 결코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압살롬에게도 많은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David는 여기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기본적으로 반란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윗을 그 성에서 몰아내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장의 나머지 부분과 16장, 17장에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3회기 사무엘하 13-15장 12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13. 탕자는 몸으로는 집에 돌아오지만 영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4.1-15 12.